

#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



강의명	문: 삶과 꿈
담당교수	박정식 교수님
제출일	2023년 12월 3일
학번/이름	202321508 이동연

# 목차

---

## I. 서론

- i. 연구 배경/목적 - 모티프
- ii. 선정 모티프 -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 II. 본론

- i.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분석
  - (a) 모티프 분석
  - (b) 모티프 속 등장인물 분석
- ii.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다른 작품 분석
  - (a) 영화 <덤 앤 더머 (Dumb And Dumber)>
  - (b) 영화 <레인 맨 (Rain Man)>
- iii.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장르 분석
  - (a) 공포 장르(Horror)
  - (b) 피카레스크 장(Picaresque)
  - (c) 탐사 장르(Detective)
  - (d) 기사도 로맨스(Romance)
  - (e) 코미디(Comedy)
  - (f) 비극, 희비극 (Tragedy,

Tragi Comedy)

(g) 장르에서의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역할-고조/전환

iv.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의 연계 모티프

- (a) 하인의 도망
- (b) 기사의 현실 자각
- (c) 기사의 하인 의지
- (d) 테스트
- (e) 시간 때우기

v.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다른 해석

- (a) 나의 삶 속 모티프 - ‘망상하는 친구, 현실적인 나’

III. 결론

IV. 참고문헌

---

## I. 서론

### i. 연구 배경/목적 - 모티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야기한다. 자신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꾸며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글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도 읽히고 있는 소설이 되고, 나아가 문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우리가 자극받고 감동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모티프’가 있다. 우선, 모티프는 이야기, 줄거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요소이다. 문학 작품 내에서 자주 일어나고 반복되는 무언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작품 속 요소들을 작게 조각 내놓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모티프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다음 줄거리로 넘어가게 해주고, 이야기 속 장르와 주제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런 모티프가 중요한 다른 이유는 바로 현대 세대까지의 전승이다. 즉, 과거의 모티프가 점차 전승되어 현재의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모티프가 되어 왔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동화와 신화 속의 모티프가 현재까지 전승되어 지금 우리가 읽고 활용하는 문학을 구성한다. 물론, 과거의 모티프를 현재에서 과거에서 사용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그 모티프를 활용하고 해석하며 현대의 새로운 모티프를 창조하고 융합시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모티프의 전승’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들 수 있다. 모티프를 알고, 문학의 전승과 그 역사를 알고 문학에 접근하면 과거의 작품과 그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뿐 더러 나아가, 전 세대의 작품을 현세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교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또, 문학 작품 자체를 더 넓은 범위에 적용해 바라보고, 더욱 구체적이고 활용도 높게 문학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모티프 하나를 통해 그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유사한 시대별 작품을 모티프의 관점에서 새로이 해석하고 시대상을 파악하거나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티프가 가치를 뽐내 발생시키는 연계 모티프를 통해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1605년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출판한 소설, 세계 문학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토테’를 읽고 모티프를 하나 선정하여 그 모티프를 분석할 것이다. 선정한 모티프가 소설 돈 키토테 속에서 어떤 역할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고, 작품 내에서 발생시키는 연계 모티프 또한 분석하고자 한다. 또, 모티프를 다양한 장르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역할을 분석하여 장르라는 다양한 범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할 것이고, 선정 모티프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을 가진 타 작품들을 알아보고 비교 분석해 보면서 선정 모티프가 현대로 전승된 형태와 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삶 속에서 선정 모티프를 연계하여 보다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모티프와 비교하고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선정한 모티프의 작품 내, 다른 작품, 다양한 장르, 현실에서의 역할과 그 결과를 도출해 내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ii. 선정 모티프 -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키토테’ 속에서 선정한 모티프는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이다. 망상하는 기사는 돈 끼호테 데 라만차를 말하고 현실적인 하인은 돈 끼호테의 하인인 썬초 뽀사를 말한다. 이 모티프는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몇몇 예시를 들어보겠다.

“돈 끼호테가 말했다. “기다란 팔뚝을 자랑하는 거인들이 안 보이냐? 어떤 높은 팔 길이가 거의 두마장이 넘는 놈도 있는데.” “아닌데요, 나리.” 썬초가 대답했다. “저기 보이는 저건 거인들이 아니라 풍차인덱쇼. 그리고 팔뚝처럼 보이는 건 풍차 날개예요. 저 날개가 바람에 돌면서 돌절구를 돌리죠.”<sup>1</sup>

돈 끼호테 소설 속 8장에서 위 내용의 대화를 볼 수 있다. 위 대화는 돈 끼호테와 썬초의 대화인데, 돈 끼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생각하고 있고, 썬초는 이런 돈 끼호테의 말에 거인이 아니라 풍차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인 돈 끼호테는 풍차를 거인으로 망상하고 있고, 하인인 썬초는 실제 상황을 말하며 돈 끼호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에 돈 끼호테는 썬초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고 풍차로 돌진하여 크게 다치게 된다.

“혼자서도 내가 도와야 하는 편에다 승리를 가져다줄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 돈 끼호테는 로신안페에 박차를 가하고, 창을 창받이에 꽂은 채 언덕배기를 비호같이 내려갔다. 썬초가 소리소리를 질렀다. “돌아오세요 나리, 돈 끼호테 나리, 하느님께 맹세하지만 시방 쳐부수려고 하는 것들은 양 떼와 염소 떼라니깐요! 되돌아와요, 제발 이런 환장한 일이 ...”<sup>2</sup>

돈 끼호테 소설 18장에서는 돈 끼호테와 썬초가 가다 양쪽에서 한 쪽에는 양 떼, 한 쪽에는 염소 떼가 다가온다. 이를 돈 끼호테는 뽀따뽀린의 부대와 알리판파론의 부대의 싸움으로 인지하고, 승리를 가져다주기 위해 그 가운데로 뛰어들어 가려고 한다. 돈 끼호테의 이런 행동을 보고 썬초는 다시금 지금 보는 것이 양 떼와 염소 떼임을 말하며 현실상황을 인식시켜주려고 하고, 돈 끼호테를 말린다.

“썬초는 나리의 마지막 결심을 보니 아무리 눈물 흘리고 간청하고 충고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기 방법을 사용해서 날 쉴 때까지 주인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로신안페의 뺨대를 멋지게 매어준다는 구실로 아무도 모르게 자기 당나귀의 고삐로 로신안페의 양발을 묶어놓았다.” , “그러니까 썬초, 로신안페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비록 동이 빨리 트지 않아 울고 싶은 심정이지만.”<sup>3</sup>

이렇게, 썬초는 돈 끼호테에게 아무리 충고하고 말려도 말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의 당나귀인 로신안페를 묶어 놓는다. 이에 돈 끼호테에게 하늘의 뜻이라 연기하는데, 돈 끼호테는 역시나 이를 믿고 로신안페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쉬워한다. 현실적인 하인 썬초가 망상하는 기사 돈 끼호테의 망상을 이용해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예시 외에도 작품 내에서 돈 끼호테와 썬초의 여정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망상하는 기사,

---

<sup>1</sup>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옮김, 창비, 2012, 112-113 페이지

<sup>2</sup> 같은 책, 237 페이지

<sup>3</sup> 같은 책, 262 페이지

현실적 하인' 모티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돈 끼호테는 계속해서 망상하며 엉뚱한 행동을 하고, 싼초는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는 돈 끼호테를 말리려고 애쓰며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계속해서 말한다. 그래서, 돈 끼호테는 망상하는 기사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싼초는 현실적인 하인으로 현실적인 실제 상황을 언급하여 해결하려 하고, 이에 망상하는 기사 돈 끼호테는 기사도를 언급하며 망상만을 대답한다. 이를 통해 선정한 모티프인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가 형성된다.

## II. 본론

### i.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분석

#### (a) 모티프 분석

##### a) 듀오(Duo)

듀오는 둘을 이르는 말인데, 선정 모티프인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은 듀오로 형태로 나타났다. 그 듀오는 기사 돈 끼호테와 하인 싼초이다. 망상하는 돈 끼호테, 현실적인 싼초가 듀오가 아닌 개개인으로 작품에서 등장하고 활용된다면, 선정한 모티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망상하여 엉뚱한 행동을 하는 기사 돈 끼호테가 있어도, 따라다니며 현실적인 조언과 설명을 해주는 하인 싼초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돈 끼호테와 싼초가 함께 여정을 떠나는 파트너로 설정되고, 여정을 떠나는 동안 다른 둘로 인해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가 발생한다.

##### b) 갑을관계(甲乙)

갑을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갑', 상대적으로 낮고 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을'로 보는 권력에 의한 상하관계인데<sup>4</sup>,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이런 갑을관계를 배경으로한다. 여기서 '갑'은 기사인 돈 끼호테이고, '을'은 그 기사를 따라 잡일을 하는 하인인 싼초이다. 즉, 기사인 돈 끼호테의 말에 하인인 싼초는 그 대부분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고, 돈 끼호테의 행동과 말을 제한할 수 없는 위치임을 말한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가 한 번,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돈 끼호테와 싼초가 신분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배경 속이었다면, 현실적인 싼초는 돈 끼호테의 망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여 금세 곁을 떠났을 것이라고 본다. 현실적인 싼초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돈 끼호테의 망상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도, 싼초는 그를 따라야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 돈 끼호테의 망상과 싼초의 조언과 말림의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모티프가 여러 번 반복되게 하고, 모티프의 성질이 쉽게 변질하지 않게 틀

---

<sup>4</sup> "갑을관계", 『네이버 지식백과』

을 설정해놓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c) 계약

돈 끼호테와 싼초의 관계는 단순히 여정을 함께하는 파트너에 그치지 않고, 보상을 둔 계약관계이기도 한데, 이 또한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에 배경이 된다. 돈 끼호테는 싼초에게 모험을 떠나기 전, 성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등 큰 보상을 약속한다. 싼초는 이를 믿고 돈 끼호테를 따라다니며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으로 모험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런 보상이 예정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싼초가 모티프를 계속해서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보상과 계약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모험이나 싼초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아 모티프가 적은 횃수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 쉬운 보상이었다면 싼초가 그 보상을 받고 이미 돈 끼호테의 곁을 떠났을 것이 분명하다.

#### d) 정해진 결과

‘기사의 망상 -> 하인의 현실 언급, 만류 -> 기사의 망상’의 구조를 보여주는 이 모티프는 매번 비슷한 결말을 보여준다. 돈 끼호테의 착각 후 싼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매번 돌진하여 사고를 당하는 전개인 풍차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싼초가 어떤 말을 하며 돈 끼호테를 말려도, 혹은 싼초가 돈 끼호테처럼 망상하였더라도 결과는 돈 끼호테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끝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에 언급했던 갑을관계로 인해 돈 끼호테가 싼초의 말을 듣고 이행할 명분 자체가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였다. 물론, 돈 끼호테가 싼초가 하인이기에 그의 말을 타당하지 않다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너무나도 강한 기사도 즉, 망상이 빈틈없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돈 끼호테는 자신이 하는 말이 모두 이치에 맞는 행동이기에 ‘발견, 준비, 이행’ 그 과정 속에 싼초의 만류는 반영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았다.

#### e) 하인의 무지

앞서 분석했던 이루어질 수 없는 계약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하인 싼초의 무지함 또한 모티프를 유지하게 한다.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순 있지만, 기본적인 상식이나 판단 능력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독자가 바라보았을 때는 어린아이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비현실적인 계약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데, 기본 상식의 부족만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는 하인 싼초가 무지에서 더 나아가 망상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는데, 이는 추후에 더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 f) 기사와 하인의 대화

돈 끼호테와 싼초는 작 중 많은 대화를 한다. 돈 끼호테는 기사도를 계속해서 말하고, 이에 싼초는 그것이 무엇이며 묻거나 혹은 돈 끼호테를 만류하는 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다. 즉, 이 모티프는 대부분 이 둘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나레이션으로만 망상하는 기사와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 구조

를 나타내는 것보다 돈 끼호테는 더욱 망상가로, 싼초는 더욱 그를 이해할 수 없어 안절부절 만류하는 하인으로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돈 끼호테와 싼초는 서로의 의견이 매우 달라 대화하다 보면 어조가 매번 고조되어 거의 갈등으로 보이는 ‘돈 끼호테 VS 싼초’ 형태의 대화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사와 하인의 대화를 통해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더 강조되고, 자주 발생한다.

## (b) 모티프 속 등장인물 분석

### a) 돈 끼호테

먼저, 분석할 등장인물은 돈 끼호테다.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돈 끼호테는 작품 초반과 후반 모두를 망상함을 알 수 있다. ‘망상하는 기사’를 보여주고, 선정 모티프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임을 보여준다. 모험의 처음, 중간, 마지막에도 변함없이 기사도를 말하며 미쳐있는데, 이는 싼초나 주변 인물의 만류에도 부동하는 망상임을 알려준다.

작 중 돈 끼호테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돈 끼호테가 자신이 죄수들을 풀어주어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보아 그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경우, 닭장 속에 갇혀가는데 자신이 본 기사도 소설에 이런 상황은 없다고 말하는 경우 등 싼초의 계속된 현실 언급을 통해 돈 끼호테가 어느 정도 현실 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자각을 겪은 돈 끼호테는 전에 자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망상하는 기사로 돌아오고, 그가 자각한 현실적인 상황을 마법사의 계략과 같은 망상으로 다시 합리화시키면서 변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망상하는 ‘일관성 있는 캐릭터인 돈 끼호테’의 양상을 작 내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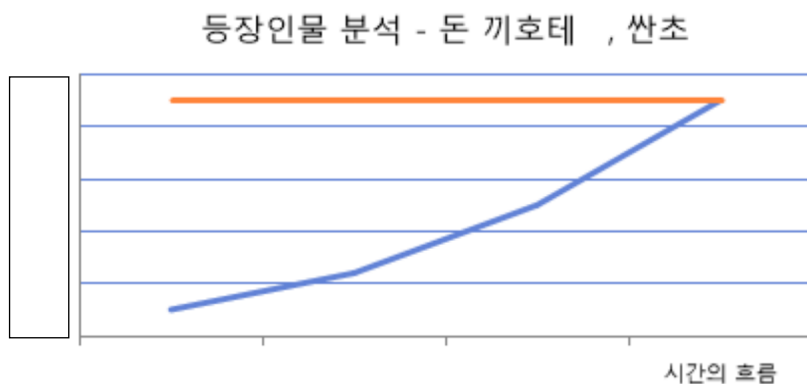
### b) 싼초

다음으로는 싼초이다. ‘현실적인 하인’인 싼초는 작품 내에서 시간이 흐르고, 돈 끼호테와 오랜 모험을 떠나는 동안 점점 망상하게 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초반 돈 끼호테와 모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싼초는 돈 끼호테의 망상과 행동에 이해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며 현실적으로 만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스토리가 진행되고, 모험이 계속될수록 싼초는 돈 끼호테를 진심으로 자신의 기사, 나리로 받들며 의지하게 된다. 그런 자신이 받드는 기사에 대한 자부심은 돈 끼호테가 하는 망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나타난다. 이런 의지는 안전에 관한 신체적 의지와 공포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법을 돈 끼호테에게서 찾는 정신적인 의지까지 확장되었다. 52장 돈 끼호테와 싼초가 다시 라만차로 돌아왔을 때, 싼초의 부인 화나는 어떤 이익을 가져왔냐고 물어본다. 이에 싼초는 자신의 기사 돈 끼호테와 모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며 망상 가득한 답변을 이어 나간다. 작품 초반, 오로지 성의 주인이 되고, 당나귀를 받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모험을 나서는 싼초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싼초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적인 하인에서 망상하는 하인으로, 돈 끼



호테를 만류하는 하인에서 안전하게 그의 망상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도출해낼 수 있다. 물론, 싹초의 계속된 만류와 현실적인 태도에도 변하지 않는 돈 끼호테를 보고 싹초는 점점 현실성이 고조되고,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다. 그렇게 참을성에 한계가 온 싹초는 돈 끼호테에게 체념한 태도로 하소연하며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는 돈 끼호테 25장에서 싹초는 머리를 박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돈 끼호테를 두고 그 곁을 떠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한다. 여기서, 싹초가 참다못해 망상하는 돈 끼호테를 포기하고 현실적인 하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 c) 돈끼호테 & 싹초



돈 끼호테와 싹초의 그래프를 모두 합하여 말하자면, 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위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 세로축은 망상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주황색 그래프는 돈 끼호테, 파란색 그래프는 싹초이다. 즉, 돈 끼호테는 싹초의 현실 언급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망상하고, 싹초는 현실적인 모습에서 돈 끼호테의 망상에 영향을 받아 끝내 망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작품 후반에서는 선정한 모티프가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에서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 모티프로 변질되고 바뀌는 것으로 보았다.

모티프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은 기사가 망상하고 그를 만류하는 하인이 아니라, 망상하는 기사를 망상하는 하인이 자랑스러워하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사와 하인이 모두 망상에 빠지게 되면 상황의 개선,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돈 끼호테의 만류라는 목적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변질한 모티프의 발생은 일관적인 캐릭터인 망상하는 돈 끼호테와 일관적이지 못하고 변화하는 싹초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런 캐릭터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한 번 더 언급하겠다.

### d) 신부

돈 끼호테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신부는 망상하지 않은 등장인물이다. 싹초와 다르게 신부는 실질

적으로 돈 끼호테에게 영향이 가게 행동한다. 예로는 돈 끼호테의 책을 모두 불태워버린다는지, 돈 끼호테를 데리고 오기 위해 계락을 짜 닭장에 가두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실적인 상황만 언급하고 호들갑을 떨며 말리는 찰초와는 차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찰초는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망상에 빠지지만 신부는 다른 변화를 한다. 신부는 돈 끼호테와 찰초를 제 3자 즉, 독자의 위치에서 바라본다. 닭장 속에 돈 끼호테가 갇혀 여행당할 때, 신부는 법사 신부와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여기서 신부와 법사 신부는 작품 내에 등장인물이라고 보기보다 저자나 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연극’이라는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다룬 법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비평한다. 작품 후반부에 망상하는 돈 끼호테와 망상하는 찰초를 보고 큰 웃음을 터뜨리고, 기사 소설의 허무맹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는데, 이는 독자의 생각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즉, 신부는 ‘현실적인 하인’이라는 소설 속의 현실성이라는 틀을 깨고, 독자가 생각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우고 실천하는 현실적인 캐릭터이며 또, 독자나 저자를 대변하여 ‘망상하는 기사’를 보며 웃고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을 보며 웃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e)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의 등장인물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는 등장인물 중 독자가 인식할 정도로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언급한다.<sup>5</sup> 그 예로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서 망상의 돈키호테(Delusional” Don Quixote), 호기심 많은 안셀모(“Curious” Anselmo), 사랑에 냉담한 마셀라(“Cold” Marcela, 사랑에 미쳐버린 카르데니오(“Mad” Cardenio) 등이 있다.

하지만, 찰초는 현실적이었다가 망상하게 되는 일관성이 없는, 변화하고 확장되는 캐릭터이다. 그러므로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일관성 있는 망상하는 돈 끼호테와 일관성 없이 변화하는 찰초로 이루어진 모티프임을 알 수 있다. 일관성없는 캐릭터 찰초가 있기 때문에 모티프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고,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 모티프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등장인물을 정형화하여 바라보았다. 에픽이나 로망스, 비극과 같은 장르에서는 고양된 언어를 사용하고 인물을 실제보다 잘나게 만들었고, 피카레스크나 코미디와 같은 장르에서는 평범하거나 저급문제를 사용하고 인물을 실제보다 못하게 표현한다 했다. 이는 돈 끼호테가 망상 속에서 다른 기사들은 언급할 때 고급스럽고 고양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다. 물론, 돈 끼호테는 자신만이 자신을 방랑기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나레이션의 설명이나 다른 등장인물의 돈 끼호테 설명은 오히려 실제보다 못하게 평범한 언어로 설명된다. 찰초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언어로 실제보다 못하게 적어낸다. 대부분의 기사도 로망스 장르의 주인공과 대비되는 돈 끼호테의 표현과 평범하게 설명되는 하인 찰초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인해 코미디 장르나 피카레스크 장르에서 장르와 돈 끼호테와 찰초라는 캐릭터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다.

---

<sup>5</sup>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박문재 옮김, 현대지성, 2021

ii.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다른 작품 분석

(a) 영화 <덤 앤 더머 (Dumb And Dumber)>

<덤 앤 더머>는 할리우드 코미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 내에서 주인공은 죽마고우인 ‘로이드 크리스마스’와 ‘해리 던’이다. 전개는 운전기사인 로이드가 고객인 매리가 두고 간 가방을 되찾아주기 위해 해리와 함께 떠나는 여정으로 전개된다. 여정 중 엉뚱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로이드와 해리가 다투기도 하고, 매리라는 여성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는 등 일이 꼬이고 꼬여 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로이드와 해리는 엉뚱한 사람 즉, 흔히 말하는 바보이다. 이는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에서 망상하는 기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돈 끼호테와 썬초의 관계와는 다르게 로이드와 해리는 둘 다 ‘망상하는 기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모티프로 표현하자면 로이드와 해리는 ‘망상하는 두 친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차이점으론 돈 끼호테와 썬초는 기사와 하인으로 갑을관계 속에 있지만, 로이드와 해리는 죽마고우인 평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갑을관계를 배경으로 한 돈 끼호테와 썬초는 썬초가 돈 끼호테의 말과 행동에 어느정도는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가 반복되고, 이후에는 썬초가 돈 끼호테처럼 망상하게 되는 등 모티프가 확장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평등한 관계를 배경으로 한 로이드와 해리는 둘 사이의 우정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 의무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자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이는 ‘망상하는 두 친구’라는 모티프를 유지시키지만, 변형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b) 영화 <레인 맨 (Rain Man)>

<레인 맨>은 주인공 찰리 배빗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한다.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3백만 달러의 유산이 있는 줄도 몰랐던 찰리의 형에게 상속됨을 알게된다. 찰리의 형 레이먼드 배빗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찰리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유산 중 절반을 얻어내기 위해 동행하며 끝내 형제애를 깨닫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를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주인공 찰리는 현실적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썬초이고, 그의 형 레이먼드는 자폐증이므로 망상하며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는 돈 끼호테라고 비유할 수 있다. 물론, 돈 끼호테 작품처럼 레이먼드가 망상하며 사고를 치거나 그를 말리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망상하는 캐릭터, 현실적인 캐릭터 설정이 비슷하다고 봤다. 나아가, 돈 끼호테와 썬초가 가진 상식이나 지식 부분에서도 공통점을 가진다고 보았다. 돈 끼호테는 망상하지만 썬초보다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풍부한 지식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썬초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돈 끼호테에 비해 지식 수준이 떨어진다. <레인 맨>에서는 형인 레이먼드는 자폐증으로 망상하지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이고, 찰리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자동차 사업에 실패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다. 즉, 지식과 재능으로 보았을 때 레이

먼드가 찰리보다 지식 수준이 높으므로 망상하는 돈 끼호테가 현실적인 싼초보다 지식 수준이 높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이런 지식 수준의 차이는 돈 끼호테에서는 돈 끼호테의 망상이 싼초의 조 언보다 더 수준 높은 것으로 보며 망상을 합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레인 맨>에서는 레이 먼드의 재능으로 찰리가 성공에 도움을 얻는 등 천재적인 재능과 현실적인 시선이 서로를 돕는 데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차이점으로는 위 작품 <덤 앤 더머>에서와 같이 갑을관계가 아닌 서로서로가 의무를 지니지 않는 형제관계 즉, 평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또, 돈 끼호테와 싼초는 서로 모험을 떠나며 망상이라는 것으로 동화되어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변화를 겪지만, 찰리와 레이먼드는 서로의 가치를 깨닫고, 편견을 깨뜨리며 형제의 사랑을 진정성을 깨닫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졌다.

### iii.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장르 분석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가 다양한 장르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 (a) 공포 장르 (Horror)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작품 내에 무서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싼초는 무서운 상황에서 돈 끼호테에게 호들갑을 떨며 그 상황을 설명한다. 이런 싼초의 현실적이고 강한 리액션은 스토리 속 무서운 요소가 고조된다. 이에 돈 끼호테는 상황을 망상으로만 보고 나아가기만 하는데, 이는 싼초의 리액션을 더 강조한다. 돈 끼호테 273 페이지 中 “온 밤을 그토록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무서운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여섯 개의 물레방아 절굿공이였고, 이것들이 번갈아 내리치면서 그토록 요란스러운 소리를 냈던 것이다.” 는 앞서 말한 공포 분위기 고조의 예시로 들 수 있다.

#### (b) 피카레스크 장르 (Picaresque)

악당과 범죄가 주제인 피카레스크 장르에서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장르 속 범죄를 합리화하거나 독자에게 인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먼저, 범죄의 합리화는 돈 끼호테의 망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돈 끼호테가 끌려가는 죄수들을 풀어준 것이 있다. 이는 명백하게 범죄인데, 돈 끼호테는 이를 망상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로 합리화한다. 다음으로는 독자의 범죄 인식이다. 앞서 말한 망상을 통한 범죄 행위 설명은 독자들이 작품 내에서 실제 범죄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싼초는 이 상황을 보고 현실적으로 들려서는 안된다고 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독자는 확실하게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게된다.

#### (c) 탐사 장르 (Detective)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것을 주제로 하는 장르인 탐사 장르에서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은 탐사 장르에서 중요한 단서나 실마리를 제공하거나 사건 자체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찰초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단서가 될만한 것들을 말하며 의심하고, 돈 끼호테는 망상하며 계속해서 상황을 진행시킨다. 예로 미친자를 찾기 위해 찰초가 편지를 읽어보자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단서를 통해서 스토리는 계속 전개된다. 돈 끼호테와 찰초의 관계 속에서 찰초는 돈 끼호테를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할 수 없지만, 찰초는 돈 끼호테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찰초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돈 끼호테는 망상하며 스토리 내의 사건에 개입하고 미친자를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간다. 그리고 찰초는 따라가며 돈 끼호테가 망상으로 찾지 못하는 단서들과 실제의 흔적들을 말한다. 즉, 돈 끼호테는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게 사건 속으로 더욱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찰초는 탐사 장르의 스토리 전개에 필수적인 의심과 그런 의심에 따른 단서를 돈 끼호테가 나아가 연루된 사건 속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해 현실적인 증거나 사실을 돈 끼호테에게 말하는 역할을 한다.

#### (d) 기사도 로맨스 (Romance)

돈 끼호테의 망상은 기사도 소설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장르는 바로 기사도 로맨스 장르이다. 기사도를 배경으로 망상하는 기사 돈 끼호테와 현실적인 하인 찰초 구조는 돈 끼호테의 망상을 강조한다. 돈 끼호테에서 기사도는 현실적으로 시대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대에 맞게 살아가는 찰초와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돈 끼호테의 기사도 망상을 더욱 망상에 가깝게 만들어준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서 돈 끼호테가 따르고자 하는 기사도에 대해 현실적인 찰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찰초에 공감하게 된다. 물론, 이 모티프는 기사도 로맨스 장르에서의 기사가 보여주는 독자적인 영웅성이나 귀부인을 향한 사랑에 고귀함, 웅장함 등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사도 로맨스 장르를 확장시키거나 대부분 로맨스를 쓰는 저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사도와 기사의 사랑을 웃음거리로 만든다. 하지만, 기사 돈 끼호테와 대비되는 찰초에 비추어서 기사도라는 것이 현실과 얼마나 벗어나 있고, 영웅인 기사가 되기 위해 일반 사람들과 어떤 다른 역량을 가져야하는 것인지 등 기사도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게 하고,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 (e) 코미디 (Comedy)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코미디 장르에서 활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 a) 아리스토텔레스의 코미디 시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코미디 시학에서는 코미디의 미학은 부조화와 결함을 통한 우스꽝스러움이라고 말한다.<sup>6</sup> 그리고, 반복(Set-Piece)라고 말하는데, 이는 선정한 모티프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부조화라

---

<sup>6</sup>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박문재 옮김, 현대지성, 2021

고 하면 돈 끼호테는 망상하고, 싼초는 현실적인 말을 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그것 외에도 돈 끼호테는 기사 (높은 신분), 싼초는 하인 (낮은 신분)과 같은 신분의 부조화, 마르고 키가 큰 돈 끼호테와 뚱뚱하고 키가 작은 싼초와 같은 겉모습의 부조화 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싼초의 현실적인 발언은 돈 끼호테의 망상을 더욱 망상스럽게 만들어 근대사회에서 중세의 방랑 기사를 망상하는 돈 끼호테가 사회규범으로의 부조화를 일으킨다. 다음으로는 반복, 세트 피스 (Set-Piece)이다. 세트 피스는 스토리 전개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정형화된 즉, 반복해서 일어나는 정해진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코미디에서 중요한 웃음장치로 쓰여진다. 돈 끼호테와 싼초도 이런 세트 피스로 웃음을 주는데, 반복되는 상황으로는 이렇다. 첫번째로 돈 끼호테가 망상하여 상황을 오판하고, 두번째로 돈 끼호테가 이 상황에 무작정 돌진하며 개입한다. 세번째로 그의 하인 싼초가 돈 끼호테에게 망상을 지적하며 현실상황을 말하고, 네번째로 돌진하는 돈 끼호테를 만류한다. 마지막으로 돈 끼호테가 이를 무시하고 돌진해 결국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를 겪는다.

<돈 끼호테 세트 피스 (Set-Piece)><sup>7</sup>

- 1) 기사의 망상/상황오판
- 2) 기사의 돌진/돌격
- 3) 하인의 망상 지적/현실상황 설명
- 4) 하인의 기사 만류
- 5) 기사의 만류 무시 후 사고

의 순서로 세트 피스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다.

풍차 사건, 염소 떼와 양 떼 사건, 비스까야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b) 슬랩스틱 코미디 (Slapstick Comedy)

슬랩스틱 코미디는 몸으로 웃기는 코미디로, 주로 때리거나 맞으면서 취하는 리액션을 의미한다.<sup>8</sup> 슬랩스틱 코미디가 장르인 작품으로는 톰과 제리(TOM and JERRY)가 있다. 톰과 제리는 고양이인 톰과 쥐인 제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작품은 톰이 제리를 잡아 먹기 위해 쫓아가는 내용으로 매화가 전개된다. 톰이 제리를 쫓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고, 문턱에 발등을 찍히는 등 엉뚱한 몸개 그를 하며 다치는데, 이를 통해 청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이것이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표적인 예이고, 나아가서 배우가 대화없이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극인 팬터마임 또한 슬랩스틱 코미디 중 하나라고 말한다. 작 중 돈 끼호테와 싼초에게서도 슬랩스틱 코미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sup>7</sup> "세트피스(set piece)" 『네이버 지식백과』

<sup>8</sup> "슬랩스틱 코미디" 『네이버 지식백과』

돈 끼호테는 망상하며 착각하여 앞서 설명한 세트 피스를 따라 돌진하여 부딪히고 넘어지는 등 엉뚱한 몸개그를 보여준다. 찐초의 현실적인 상황 설명과 호들갑을 떨며 만류하는 모습은 엉뚱한 돈 끼호테의 몸개그를 더욱 엉뚱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돌격하는 돈 끼호테를 따라 만류하는 찐초가 마다 못해 돈 끼호테를 따라 가는데, 찐초 또한 돈 끼호테처럼 부딪히고 넘어지는 등 몸개그에 합류한다. 돈 끼호테와 찐초의 세트 피스에 '찐초의 사건 합류 후 사고' 여섯번째 과정으로 추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돈 끼호테의 슬랩스틱 코미디는 망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있지 않은 괴물이거나 거인, 마법사 등을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는 앞서 슬랩스틱 코미디의 또 다른 예로 말했던 팬터마임을 연상시킨다. 돈 끼호테의 시점에서는 마임이 될 수 없지만, 그의 옆에 있는 현실적인 찐초나 다른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돈 끼호테를 바라봄으로써 마치 팬터마임을 하는 돈끼호테와 그것을 보고 웃는 청자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 웃음장치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 c) 블랙 코미디 (Black Comedy)

블랙 코미디는 아이러니한 상황, 웃기면 안 되는 상황을 강조하여 웃음을 주는 코미디로 부조리한 사회를 웃기게 나타내어 익살스럽게 풍자한다.<sup>9</sup> 블랙 코미디의 예시 작품으로는 영화 <기생충>을 들 수 있다.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 상류층인 가족과 하류층인 가족의 만남을 보여주며 사회모순이나 부조리를 기이하게 풀어낸다. 상류층의 가족인 박동익 일가에 하류층 가족인 김기택 일가의 가족 구성원이 위조문서와 계약을 통해 박동익 일가의 집사나, 운전사, 과외선생 등으로 취업하여 마치 '기생충'처럼 자신들의 집으로 몰래 사용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영화에서 하류층 가족의 집인 반지하 집에 물이 들이닥쳐 그 물을 퍼내는 모습이나 살균가스를 이용해 문을 열어 좋아하는 모습과 같이 하류층의 슬픈 현실을 웃기게 연출하여 상류층과 비교되는 사회상을 풍자하고, 그 모순을 색다르게 표현한 블랙 코미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렇게 씩씩한 웃음을 주는 블랙 코미디가 돈 끼호테와 찐초에서도 나타난다. 모티프를 분석할 때 모티브의 반복과 유지의 원인으로 말했었던 이루어질 수 없는 돈 끼호테와 찐초의 계약을 통해 독자에게 씩씩한 웃음을 가져다 준다. 찐초는 돈 끼호테가 약속한 당나귀라든지, 성의 영주 자리를 받을 것이라고 믿으며 돈 끼호테의 모험에 함께한다. 이런 하인의 이뤄지지 않는 계약을 믿고 따르는 모습은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준다. 갑을관계에서 이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을을 연상시키며 사회모순을 보여준다. 이런 모순을 웃기고 가볍게 표현하며 불평등한 사회와 신분의 관계를 웃기게 풍자한다.

### (f) 비극, 희비극 (Tragedy, Tragi Comedy)

조금 다르게, 스토리 중심의 전개와 나레이션의 개입이 별로 없는 비극에서는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비극 장르에서 활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서 비극의 이야기

---

<sup>9</sup> "블랙 코미디" 『나무위키』

<sup>10</sup> "기생충", 『나무위키』

를 효과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 돈 끼호테와 싼초의 모습을 배제한다. 망상하는 돈 끼호테와 그 모습을 보고 호들갑 떨며 말리는 싼초의 모습은 비극의 진지한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데 방해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작 중 까르데니오와 루스신다의 사랑 이야기나 안셀모와 로파리오 이야기를 전개할 때에, 미친자로 등장해 돈 끼호테에게 설명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돈 끼호테와 싼초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돈 끼호테와 싼초의 망상과 행동이 진지한 스토리 전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저자 세르반테스의 주장이 어느정도 드러난다. 희비극에서는 모든 비극이 해결되고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데, 돈 끼호테 작 중에서 객줏집에 모두가 모여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까르데니오와 도로페아의 비극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돈 끼호테와 싼초 또한 한 곳에서 모인다. 스토리를 전개할 때에는 제외됐던 돈 끼호테와 싼초가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돈 끼호테와 싼초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연출된다. 이는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기사와 후반부에 돈 끼호테처럼 망상에 빠진 하인을 보여준다.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에서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 모티프로 변질된 것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한다. 돈 끼호테와 싼초는 진지한 스토리에선 활용되기엔 가볍고 웃음장치와 가까운 듀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 (g) 장르에서의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역할 - 고조/전환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를 분석한 결과 이 모티프는 주로 장르를 구성하는 요소를 고조하는 역할을 하고,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서 장르가 전환되는 데 사용된다. 공포 장르에서의 무서운 분위기 고조, 탐사 장르에서 사건 전개와 단서 발견과 같이 해당 장르를 더 고조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른 역할로는 장르의 전환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포 장르에서 코미디 장르로 넘어갔던 20장에서 찾을 수 있다.

“온 밤을 그토록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던 그 무서운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여섯 개의 물레방아 절굿공이였고, 이것들이 번갈아 내리치면서 그토록 요란스러운 소리를 냈던 것이다.”<sup>11</sup>

이 부분을 보면, 돈 끼호테와 싼초가 공포감을 느끼던 그 소리가 물레방아였음이 드러나면서 돈 끼호테와 싼초가 웃음을 터뜨리는 공포 장르에서 코미디 장르로 전환되는 장면이 있다. 이런 장르의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은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망상하는 돈 끼호테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현실적인 하인 싼초는 그런 돈 끼호테를 따라가며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 한다. 이런 요소는 공포 장르에 독자들이 더 몰입하게끔 도와준다. 후에 그 무서웠던 소리의 정체가 물레방아였음이 드러났을 때 싼초는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돈 끼호테는 웃음을 참으며 웃지말라고 말하지만 싼초는 계속해서 웃음으로써 공포 장르에서 코미디 장르로 넘어가며 독자들을 어처구니 없게 만들며 웃음을 준다. 만약, 돈 끼호테만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것 또한 마법사의 계

<sup>11</sup> 같은 책, 273 페이지



락과 같은 망상으로 넘겨 공포 장르에서 코미디 장르로 전환되지 않고, 기사도만을 말하며 독자의 지루함과 장르의 모호함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찐초의 현실적인 격한 리액션과 웃음은 장르의 전환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작품의 장르에서 활용되어 문학적인 풍요로움을 준다. 장르의 경계에 위치함으로써 독자가 더욱 흥미롭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

#### iv.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의 연계 모티프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를 통해 발생하는 연계 모티프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 (a) 하인의 도망

망상하는 기사 돈 끼호테의 엉뚱한 행동을 현실적인 하인 찐초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한다. 계속된 돈 끼호테의 행동에 찐초는 한계를 느껴 돈 끼호테의 곁을 떠나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난다.

“두 다리를 공중에 치켜든 채 머리를 밑으로 박고 떨어지는 바람에 못 볼 것이 튀어나오자 찐초는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말고삐를 돌렸다.”<sup>12</su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찐초가 돈 끼호테의 엉뚱한 행동을 말리고 말려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돈 끼호테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로신안떼를 타고 떠난다. 기사와 하인의 갑을관계와 계약의 제약에도 그 결속을 깨질 만큼 찐초가 해방, 도망을 굳게 결심한 사례이다.

하지만, ‘하인의 도망’으로 이어지고 난 후 찐초는 돈 끼호테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신부, 이발사와 함께 다시 돈 끼호테를 향해 간다.

“그럼 이 정도에서 우리는 찐초가 길 떠나는 이야기를 접고, 얼마 안돼 그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자.”<sup>13</sup>

라는 25장의 마무리 문장에서 찐초가 다시 돌아옴을 암시한다. 찐초가 도망간 것은 자신의 자유를 찾고자한 결심이었지만, 돈 끼호테를 따라 망상에 빠져버린 찐초는 이미 돈 끼호테라는 자신의 기사에게 크게 의지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찐초는 당연한듯이 신부, 이발사와 세밀한 계획을 세워 분장하여 돈 끼호테를 데려오려고 한다. 이는 독자들도 쉽게 예상 가능한 찐초의 행보를 보여준다.

또, 찐초의 도망에는 다양한 조건이 붙었다. 찐초는 돌시네아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돌아오겠다는 말

---

<sup>12</sup> 같은 책, 371 페이지

<sup>13</sup> 같은 책, 371 페이지

로, 돈 끼호테의 편지를 받아야 갈 수 있다는 조건과 돈 끼호테의 새끼 당나귀 세마리를 싼초에게 준다는 증서를 받아야 가겠다는 조건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참을성에 한계를 느껴 도망을 결심한 싼초가 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망상의 공주와 망상의 계약을 실제 사건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이미 망상에 빠진 하인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인의 도망은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을 더욱 고조시키면서도 그 속에는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의 모습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 (b) 기사의 현실 자각

망상하는 기사 돈 끼호테가 현실을 자각하기도 한다.

“세상에 전해지는 수많은 방랑기사 이야기를 죄 읽어보았어도 마법에 걸린 방랑기사를 이런 꼴로 천천히 끌고 가는 일은 내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노라.”<sup>14</sup>

이 부분에서 돈 끼호테는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망상의 배경지식이 되는 자신이 읽어왔던 방랑기사 소설과는 다름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돈 끼호테가 자신이 읽은 기사소설과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다름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가 인식하고 있는 돈 끼호테라면, 겪고 있는 상황 또한 마법사의 계약 등의 망상의 연장선으로 생각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돈 끼호테는 몇몇의 조건 아래 현실을 인식하고 자각하게 된다.

첫째 조건은 돈 끼호테 주변 인물이 꾸며낸 망상이다. 위 상황은 신부, 이발사 등의 주변인물들이 돈 끼호테를 다시 라만차에 데려다 놓기 위해 짜여진 상황이다. 돈 끼호테가 의구심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돈 끼호테가 생각하는 방랑기사 소설에 상황처럼 만들어 돈 끼호테를 속이며 이런 계획이 진행된다. 즉, 돈 끼호테가 하는 망상을 꾸며내어 그럴듯하게 만든 상황이다. 이렇게 꾸며낸 망상이 기사소설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돈 끼호테에게 의구심을 품게 만든 것이다. 만약, 돈 끼호테를 데려가는 데에 있어 망상처럼 꾸미지 않고 현실적인 말과 상황으로 이행했다면 돈 끼호테는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 상황 또한 기사소설의 망상을 통해 바라보았을 것이다. 망상으로 꾸며내지 않고 돈 끼호테를 데려가려고 한다면 돈 끼호테는 도망가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런 계락을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현실을 망상으로 인식하고, 그럴싸하게 구현한 망상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의심을 품는 모순적인 돈 끼호테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 조건은 싼초의 계속된 현실 발언이다. 망상하는 돈 끼호테의 옆에서 계속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언급하며 그를 만류하던 싼초의 행동은 돈 끼호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싼초의 이런 행동이 계속되어 시간이 흐른 후반에는 돈 끼호테가 싼초의 현실 발언을 어느정도 믿기 시작한다. 물론, 신부나 이발사와 같은 현실적인 등장인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

---

<sup>14</sup> 같은 책, 714 페이지

만 그래도 망상만 하는 기사인 돈 끼호테가 현재 상황에 의구심을 품고 찐초에 말에 수궁하게 된다.

이렇게, 찐초의 꾸준한 현실적인 행동과 꾸며낸 망상이라는 조건 아래서 돈 끼호테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겪고 있는 상황에 아이러니함을 느끼는 등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c) 기사의 하인 의지

하인 찐초가 기사 돈 끼호테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작품의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돈 끼호테도 찐초에게 의지하게 된다. 찐초와 모험을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돈 끼호테는 찐초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혼자 행동하려 하고 찐초가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이 태도는 조금씩 변화한다.

“찐초 이 사람아, 나 좀 도와서 마법에 걸린 짐수레 위에 태워주게나. 이 몸으로는 로신안떼 위에 얹혀갈 힘도 없구나. 내 어깨가 온통 조각조각 부서진 것 같아.”<sup>15</sup>

이것은 돈 끼호테가 염소치기와의 싸움 후 찐초에게 자신을 일으켜 수레에 태워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다. 원래 같은 경우라면 돈 끼호테는 찐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되려, 자신이 다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사도로 둘러대며 핑계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52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며 찐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는 돈 끼호테가 찐초를 의지하게됨을 의미한다.

이런 기사와 하인의 의지는 하인의 기사 의지가 우선으로 나타난다. 초반에 찐초는 돈 끼호테를 의지하기 보다는 그의 망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과 같은 자신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모험을 이어가고 그를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20장의 물레방아 사건이나 24장의 돈 끼호테에게서의 도망 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부분에서 찐초가 돈 끼호테에게 의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공포감이 느껴지는 상황에 있어 돈 끼호테에 곁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거나, 돈 끼호테를 이해하지 못해 떠나왔지만 그를 꼭 데리고 와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부분에서 말이다. 이와 같이 기사 또한 하인에게 의지하게 된다. 돈 끼호테는 모험 초반에 찐초의 현실적인 의견을 등한시하고 돈 끼호테 혼자만의 모험이라 칭해도 될 정도로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게 사건을 전개했다. 그러나 모험이 진행될수록 찐초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찐초에게 시키고 역할을 준다. 돈 끼호테만의 사건에서 찐초를 돈 끼호테의 조력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온전히 찐초를 돈 끼호테와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필요시하진 않는다. 그럼에도 돈 끼호테는 모험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한계상황에 도달했을 때 찐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잦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인은 기사를 의지하게 되고, 기사 또한 하인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가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공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인은 망상의 동화라고 볼

---

<sup>15</sup> 같은 책, 781 페이지

수 있다. 돈 끼호테의 망상에 싼초가 동화되어 망상하는 하인이 되는 과정에서 망상을 배경으로 한 상황의 공유나 사건 전개와 해결에 있어 함께했기 때문에 기사와 하인 사이에 우정과 연대감, 망상을 주체로 한 결속감이 형성되어 서로를 의지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 (d) 테스트

기사와 하인이 서로의 자격을 묻는 테스트 모티프가 발현된다.

“싼초 이 사람아, 제발 입 좀 다물고 앞으로는 그저 자네 당나귀 모는 일이나 잘하게!”<sup>16</sup>

돈 끼호테는 싼초에 말에 불만을 느끼고 신분을 지키고 하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태도나 행동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싼초의 행동에 지적을 하며 방랑기사의 하인으로써의 자격을 논하는 발언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돈 끼호테는 싼초가 방랑기사의 말에 따라야 하고, 사사로운 말대꾸는 하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 “이 친구야”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반대로, 싼초 또한 돈 끼호테에게 자격에 대해 묻는다.

“더군다나 나리같이 뛰어난 어른을 모시는데 나리가 어련히 잘 알아서 소인에게도 맞고, 또 소인도 잘해나갈 만한 자리를 마련해주시겠지요.”<sup>17</sup>

싼초는 돈 끼호테가 자신에게 보상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언급한다. 물론, 돈 끼호테의 몇 마디째 되지 않는 말에 싼초는 성의 영주 자리와 큰 보상들을 받게 될 것이라 굳게 믿지만 그럼에도 싼초는 모험 중간중간 돈 끼호테에게 기사가 가지는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 자주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돈 끼호테와 싼초는 쌍방으로 서로의 자격에 대해 논한다. 돈 끼호테는 방랑기사의 하인으로써의 예의와 같은 것을 따지고, 싼초는 돈 끼호테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의 확신을 따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서로가 자격을 논하는 테스트 모티프를 반복해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돈 끼호테와 싼초의 모험이 유지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 (e) 시간 때우기

“지금부터 날 쉼 때까지 소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즐겁게 해드리겠구만요.”

“어쨌거나 어부는 또다시 양 한마리를 가지러 왔고, 그다음에 또 한마리, 다시 또 한마리.....”<sup>18</sup>

이는 싼초가 돈 끼호테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이때 싼초는 돈 끼호테를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 당

---

<sup>16</sup> 같은 책, 348 페이지

<sup>17</sup> 같은 책, 111 페이지

<sup>18</sup> 같은 책, 263 페이지

나귀 로신안떼의 발을 묶어 놓고, 하늘의 명령이라는 등의 거짓을 하며 돈 끼호테를 속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절대 중간에 중단하지 말라고 말한 그 이야기는 양을 하나씩 옮기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무한담, 누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돈 끼호테의 망상과 그로 인한 행동 자체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싹초의 시간 때우기이다. 여기서의 싹초는 돈 끼호테의 망상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사용하는 교활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스토리 전개를 이끌어 준다.

## v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다른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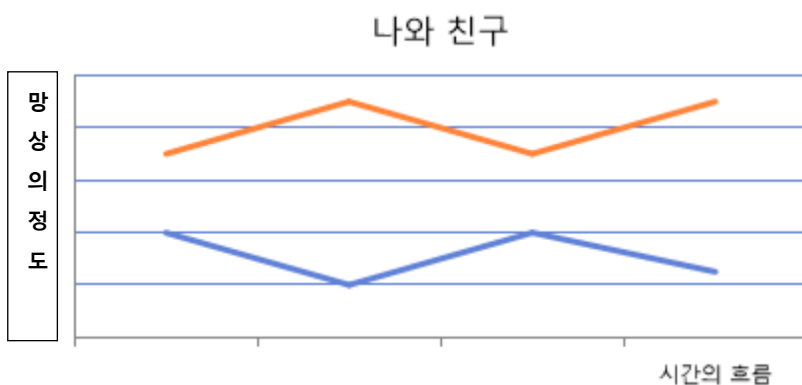
### (a) 나의 삶 속 모티프 - ‘망상하는 친구, 현실적인 나’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와 유사한 나의 삶 속의 모티프인 ‘망상하는 친구, 현실적인 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a) ‘망상하는 친구, 현실적인 나’

나의 삶 속 모티프는 바로, ‘망상하는 친구, 현실적인 나’ 모티프이다. 돈 끼호테 속에서 선정했던 모티프와 유사한 나의 삶 속 모티프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와 나의 관계이다.

먼저,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살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인데,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돈 끼호테처럼 망상한다는 점이다. 평범한 주변 친구들과 다르게 엉뚱하게 행동하게 흔히 말하는 4차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친구와 매순간을 같이 하는 나는 매년 현실적으로 ‘그러지 마라, 현실을 바라보아라’ 등의 조언과 충고를 하곤 한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프는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이고, 세로축은 망상의 정도이다. 주황색은 나의 친구이고, 파란색은 나이다. 그래프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망상의 정도는 나의 친구가 나보다 월등히 높다. 하지만, 친구는 평소보다 많은 망상을 할 때가 있고, 적게 망상을 하며 현실적인 상황에 더 몰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른 나의 망상이 변화한다.

1. 친구의 망상이 높을 때 -> 나의 망상이 낮아지고 더 현실적으로 변함
2. 친구의 망상이 낮을 때 -> 나의 망상이 높아지고 친구와 비슷해지려고 함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친구가 더 망상할 때는 더 현실적으로 말해주며 친구를 절제시키고, 친구가 현실적으로 변할 땐 심심함을 느낀 나는 친구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며 친구를 웃겨준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작용 관계가 될 수 있었다.

#### b) 돈 끼호테와 공통점

돈 끼호테, 찰초와 나의 삶 모티프의 공통점은

- 1) 한 명은 망상하고, 한 명은 현실적임
- 2) 망상하는 사람에게 현실적인 사람이 동화됨 - 내가 친구를 따라 망상함 등이 있다.

#### c) 돈 끼호테와 차이점

돈 끼호테, 찰초와 나의 삶 모티프의 차이점은

- 1) 돈 끼호테는 계속해서 망상, 나의 친구는 계속해서 망상하지 않음  
찰초는 현실적이었다가 망상하게 되지만, 나는 일시적인 망상만 함
- 2) 나의 망상은 친구가 현실적이게 됐을 때를 조건으로만 발현되는 한정적인 망상임
- 3) 갑을관계가 아닌 평등한 친구의 관계임
- 4) 결과가 다치거나 사고가 아닌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나 깊은 우정임  
등이 있다.

액자 소설은 세르반테스의 의도를 잘 담아 보여주는 구성의 기법이다.

### Ⅲ. 결론

우리는 앞서 돈 끼호테 작품 속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이라는 돈 끼호테와 찰초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티프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하고 연구해보았다.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의 단순한 구조만 분석해보는 것이 아닌 전후 배경과 연계될 수 있는 모티프, 타 장르와 작품으로의 분석, 새로운 해석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모티프라는 작은 개념으로 돈 끼호테 소설 자체의 구조와 의도까지 파악해볼 수 있

다.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서 에피소드 전개와 모티프 제시에 중요한 주축을 이루는 돈 끼호테와 싼초의 듀오 양상은 에피소드 전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아닌 다른 잔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배경요소가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저자의 등장인물로의 개입 후 의도 전달에 있어도 중요한 활용 요소가 되기도 한다. 즉, <돈 끼호테>라는 17세기 고전 소설의 등장인물적 요소, 배경 형성, 의도와 교훈 전달에 있어 돈 끼호테와 싼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말한다. 망상하는 기사 돈 끼호테와 현실적인 하인 싼초는 망상과 현실의 대립이라는 돈 끼호테 소설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이 틀은 확장되어 소설과 현실 세계의 구분의 양상으로 까지 나타난다. 소설 내의 역할과 소설 바깥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모티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돈 끼호테 작품의 메타픽션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픽션이란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이 작품 속 세계가 현실이 아닌 픽션임을 인지하는 설정을 두거나, 픽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작품 내에서 언급하는 작품을 말한다.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메타픽션에 있어 픽션을 인지하는 주체라거나 작가의 말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인 신부와 법사 신부는 돈 끼호테를 라만차로 호송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는 작가가 법사 신부와 신부로 개입하여 현실 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법사 신부는 돈 끼호테와 싼초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기사소설에 대해 비판하며 보고 있는 세계가 마치 현실이 아닌 픽션인 것처럼 제 3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메타픽션의 특징이 드러난다. 여기서, 돈 끼호테와 싼초는 현실 세계와는 먼 망상에 기초한 엉뚱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제 3자의 시각을 지닌 등장인물에게 현실이 아닌 픽션임을 인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또, 돈 끼호테 작품의 전개 자체가 대부분 돈 끼호테와 싼초의 모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본적인 양상이 ‘망상과 현실’임을 독자가 인지하게 해준다. 작품 외부의 현실과 싼초가 보여주는 현실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런 현실과 픽션의 대립 양상의 꾸준한 제공은 작품이 진행될수록 메타픽션의 확장에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메타픽션의 확장으로는 작가가 개입하여 바라보는 현대 연극의 비판이나 돈 끼호테 작품의 배경인 16세기 ~ 17세기 에스파냐의 시대가 가지는 모순을 제기하는 등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독자의 사회적 모순 인식과 다양한 비판과 해석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메타픽션에 있어 돈 끼호테와 싼초는 앞서 언급한 신분과 계약과 같은 사회적 모순을 인식시켜주고, 현실과 픽션을 구분하고 저자의 말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 기본적인 망상과 현실에 대립 구조를 형성시켜주는 메타픽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돈 끼호테 작품은 메타픽션적인 특징 외에도 액자식 구성이 드러난다. 액자식 구성, 액자소설은 액자가 그림을 두르듯 외부의 이야기가 내부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문학상의 기법이다. 외부 이야기를 틀로 사용하여 각각의 단편을 연결하거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기법이다. 돈 끼호테 작품 또한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돈끼호테의 작품은 돈 끼호테의 모험만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부가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각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내는 등 돈 끼호테의 모험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의 단편이 연결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돈 끼호테에서 액자소설은 외부 이야기가 돈 끼호테와 싼초의 모험이고, 내부 이야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까르데니오의 이야기라든지, 로파리오와 안셀모의 이야기 등이 된다. 그리고 돈 끼호테와 싼초의 모험을 배경으로 한 작가의 개입을 통한 사회상 비판 또한 내부 이야기가 된다. 액자식 구성의 소설은 외부

이야기는 1인칭 시점,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돈 끼호테 작품 내에선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돈 끼호테의 모험을 외부 이야기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단편과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하게 한다. 그렇기에, 돈 끼호테 작품에서는 외부 이야기가 3인칭 시점, 내부 이야기가 1인칭 시점으로 활용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는 액자소설에 있어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액자소설은 저자인 세르반테스의 시학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세르반테스는 확장이론을 내세웠는데, 확장이론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엮은 것으로, 본 이야기 외에 잔 이야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런 잔 이야기들은 본 이야기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며 또 다양한 장르의 반영과 해석을 일으킨다. 또, 잔 이야기를 통해 저자가 개입하여, 하고자 하는 말을 유연하게 전달한다. 이렇게, 액자소설은 세르반테스의 의도를 잘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기법임을 알 수 있었다. 모티프 연구를 통해 ‘망상하는 기사, 현실적인 하인’ 모티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망상하는 기사와 하인’ 모티프로의 변화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티프의 확장과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모티프는 단순히 작품 내의 구성요소로만 작용하지 않고, 장르, 문화, 비판, 해석, 시대 등에 활용되어지고, 연계 수단으로 발현된다. 이렇게, 활용되고 확장된 모티프는 시대를 거슬러 현대 문학에 유용하고 구조 형성에 기초적인 모티프가 되는 전승 모티프로도 활용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고전소설 돈 끼호테를 구성하는 모티프를 구체적으로 또는 범용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한다면 향후 고전 소설에서부터 발전해 온 문학적 요소, 구성, 전승 또는 변화된 모티프 발전 과정의 역사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관점으로 비판해보며 각 시대 문학을 보충해보고, 시대의 사상까지 파악해보고 재구성해보는 등 범용화된 시각의 확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끝내, 구체적으로 적립되고 다양화된 시각으로 앞으로 우리가 창작하고 평가하게 될 미래의 문학에 대해 구성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렇게, 모티프를 다채롭게 보는 심층적 연구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문학적 가치관 정립할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IV. 참고문헌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박문재 옮김, 현대지성, 2021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옮김, 창비, 2012